

# 35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 큰 용사가 된 기드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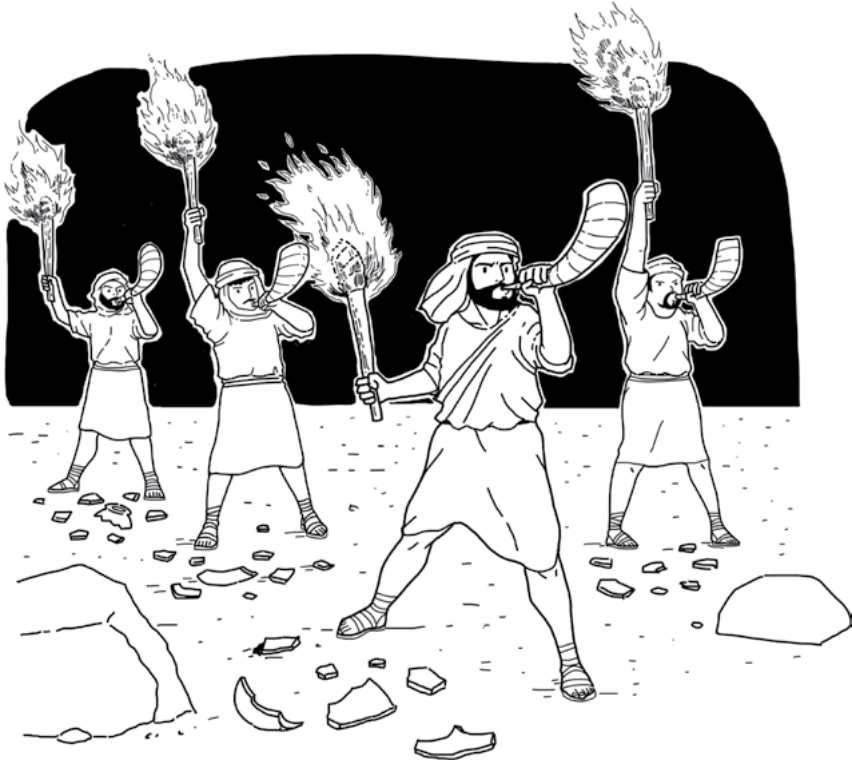
삿 6~7장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 88장 (에브라임)

오늘 배울



1.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압니다.
2.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압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핏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핏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는 자의 수는  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핏아 먹은  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삿 7:5~7)



## 을 이해하기

하나님의 구원으로 40년간 평안을 누린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이란 이름은 ‘크다, 힘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과는 반대되는 약하고 비겁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리가 없을 뿐더러 자신은 큰 용사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증거보기를 여러 차례 원했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적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결국 소명을 받아들인 기드온은 먼저,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아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사람들을 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인 자들 중 두려워하는 자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 주위를 경계하지 않은 자들을 제외한 300명을 전쟁에 나갈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과 온전히 마음이 연합된 300용사는 나팔과 횃불 그리고 향아리를 가지고 밤중에 적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향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밝히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서로를 치게 하고 도망케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한 기드온을 다듬으셔서 큰 용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여호와와 사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삿 6:12)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to him, "The LORD is with you, you mighty man of valor!" (Jg 6:12)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사사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삿 6:28~32)?
- 2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명을 선택한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선택된 백성의 수	선택의 기준
삼만 이천 명 중에서 일만 명	
일만 명 중에서 삼백 명	

3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삿 7:7, 19~23)?

4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사용한 무기의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보고 정리해 봅시다.

무기	의미	교훈
 항아리		
 횃불		
 나팔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신 17:12

---

---

---

---

---

---

---

---

의

대하 20:20

---

---

---

---

---

---

---

---

화

요 13:15

---

---

---

---

---

---

---

---

↑

요 15:5

---

---

---

---

---

---

---

---

↓

고전 1:18

---

---

---

---

---

---

---

---

↓

고후 4:7

---

---

---

---

---

---

---

---

↓

살전 2:13

---

---

---

---

---

---

---

---



##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어느 마을에 많은 부를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부자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청년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 방법은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부자노인은 사람들을 누구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심을 입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믿고 담대함으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서원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서원(誓願)이란, 율법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서원하든, 글로 써서 서원하든, 교회와의 약속이든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면 모두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서원한 것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꼭 이행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대로 행할지니라 (신 23:22~23)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전 5:4~5)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로 서원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징계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서원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이행해야 합니다.